

## 정보교육과 학교도서관에 관한 연구

유 소 영\*

### 목 차

1. 서 론	
2. 필수 교과서로서의 정보교육	3.1 다양한 자료의 집적체-학교도서관
2.1 도서관이용교육 및 독서교육과 정보교육	3.2 통합교육이론과 정보교육의 통합적 교수·학습
2.2 도구과목 및 평생교육의 도구로서의 정보교육	3.2.1 통합교육이론과 창조성 교육
3. 정보교육의 방법	3.2.2 정보교육의 통합적 교수·학습
	4. 결 론

### 1. 서 론

1993년 8월 이후 두번에 걸쳐 실시된 1994년도 대학입시 수학능력고사에서 과학교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들이 현저하게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이들 고등학교의 수업방식이 일선교사는 물론 학부모 및 학생들간에 커다란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들 학교에서는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토론식 수업을 주도했고 과목마다 연구테마를 숙제로 주어 학생들이 발표하고 교사는 발표내용을 검토, 평가”(중앙일보 1994.1.23, 3 : 21)하는 수업방식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994년 3월 신학기부터 고등학교 시험에서 서술 및 논술형 문제를 30%이상 의무적으로 출제하게 하고 수업시간중 토론, 실험실습등

을 강화하여 종합적 사고력과 응용력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적극 유도하도록하는 34학년도 중점 장학지도 사업방침을 마련하였으며 매년 1백 여회 실시하는 고등학교에 대한 「요청 장학」의 주요지도방향도 수업방식의 전환에 맞추기로 했다고 보도되었다.(한국일보 1994.1.22, 27) 대학입학시험에 대비하여 사고력, 응용력이 길러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부각되면서 수업방식의 탈바꿈의 소리가 고조되고 실험실습이나 토론식수업이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실험실습이나 토론식수업을 하자면 자연히 폭넓은 독서를 하는 것이 요청되므로 이에 연쇄반응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뒷전에 밀려 있던 독서교육의 거론이다. 실험실습이나 토론식수업 또는 폭넓은 독서를 유도하는 수업방식은 사고력, 창의력, 응용력을 개발하는데 훌륭한 수업방식으로 기실 교수·학습이론에서 말하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 수업방식이라는 점에서 여간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교수·학습방법의 전환이 대학입학시험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시작된다하더라도 그 전환의 방향이 원래의 틀로 돌아가는 쪽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수업방식의 전환의 동기가 먼 장래를 보는 인간교육이 아니라 목전에 닥친 대학입학시험이기 때문에 수업방식을 바꾸는데 있어서 성급하고 졸속이고, 반드시 있어야할 부분은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건너뛰려는 시도를 하게 되면 모처럼의 교수·학습방법의 개혁이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게 된다. 그러한 우려는 교육방법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여길 것이 우리나라 학교에 실험실습이나 토론식수업을 하기에 충분한 자료 내지는 기자재가 부족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계속적으로 운영해가는 시스템 즉 학교도서관 혹은 학습자료센터가 없거나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김용철 1986, 472) 이러한 우려를 더욱 짙게 하는 것은 앞으로 부족한 자료나 기자재를 계속적으로 충당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도서관이나 학습자료센터를 만들겠다는 포부가 학습방법 전환의 의지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교육부 1994)

우려되는 실상의 한 예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발간되는 여러종류의 독서교육 잡지들'<sup>1)</sup> 중에 대학입시를 단기적으로 겨냥한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이 팔려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도움이 되

1) 1991년에 창간된 「고교독서평설」을 비롯하여 1994년 2월말 현재 8종류가 있다. 이들 잡지는 거의 대부분이 1993년 대학입학수능고사가 확정된 이후 창간되었다.

는 방식으로 교수·학습과정을 운영해 갈 수 밖에 없다면 포장만 달리하는 수업방식의 전환이 될 것이다. 깊이있는 책읽기를 도와주고 학습의 폭과 깊이를 더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학교에서 추천되고 학교수업에서 실제로 이용될 때 교육부를 비롯한 산하 시·도 교육청 및 그 산하 교육연구원과 학교들이 의도하는 교육방법의 전환이 성공하게 될 것이다.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토론식수업은 수업시간에 교사가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방식이고 학생들이 주로 이야기를 주고 받으려면 학습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할 이야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 이야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자료를 읽고, 보고, 생각해야 한다. 더 많은 자료를 읽고, 보고, 생각하고 정리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열성적으로 재미있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토론에서 이야기 되는 주제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토론식수업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용할 자료인 것이다. 뿐만아니라 학생들은 여러가지 자료를 읽거나 보고 생각할때, 보다 잘 읽고, 보고,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것은 곧 읽거나 본 자료를 정리, 분석, 종합, 평가하는 능력이며 이를 위한 훈련도 또한 필요한 것이다.

학교도서관은 바로 위에서 말한 두가지를 제공한다. 즉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그 자료 찾아서 이용, 문제해결을 이룩해내는 일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에서 이 두가지 일을 효과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아야 하고 또 반드시 교실수업과 학교도서관의 정보교육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필자가 주로 문헌을 통하여(이병수 1988, 160) 그리고 일부 교사들과 만나서 이야기해본 결과 독서지도와 교과학습을 연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각 교과를 담당 교사가 담당교과에 관한 서지를 가지고, 그 서지리스트 속에 각각의 서명이 학생들 각각에게 어떤 경우에 적절할지 평가하여 제공하고, 각 학생들이 자료를 이용하는 과정을 계속 주시하면서 도와 준다는 것은 가히 상상이 되지 않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우선 교과에 필요한 서지를 망라적으로 작성하는 일부터 불가능하다. 교사는 담당교과목에 관련된 자료를 확인, 평가, 선택하여 서지를 작성해야 하고 일단 작성한 서지도 계속적으로 추가 혹은 삭제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해야 하기 때

문이다.

또 정보교육을 담당해야 할 도서관측에서도 막연히 개념상으로만 학교교육과정이 독서교육 및 도서관이용교육과 통합되어 교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양자가 통합교육될 때만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명확한 신념이 없고 따라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실무에 당하는 교사나 사서교사들이 이를 응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독서교육과 도서관이용교육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식을 수정, 확대하여 학교의 교과목담당교사와 자료전문가(사서교사)가 협동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수업을 하고 평가하는 교육을 함으로써 토론식수업은 물론 학생들의 사고력, 창의력, 응용력, 문제해결력이 증진되는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왜, 또 어떻게 그러한 교육을 해야 하는지를 밝혀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정보교육을 실시하도록 촉구하고자 한다. 본 논고는 또한, 바야흐로 모든 학교가 사고력을 시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대학입시를 겨냥하여, 수업방법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의 전환의 방향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우선 현재의 우리나라 각급학교의 독서교육과 도서관이용교육의 현상을 살펴보고 앞서 언급된 창의적 교육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정보교육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 필수 교과로서의 정보교육

### 2.1 도서관이용교육 및 독서교육과 정보교육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의 직접봉사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논의가 되어 왔던 부분은 도서관이용지도와 독서지도였다고 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이용교육은 1970년대에 얼마간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1974년 학교평준화 시책이후 학교도서관이 점차로 도태되면서 명목상 있을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학교교육과 유리되면서 1980년대 이후는 이에 대한 연구도 매우 위축되었다.

1978년 실시된 한윤옥의 조사(1978, 176)는 조사대상자의 응답범위를 고려하여

분류번호, 목록카드, 참고도서, 책의 구성, 참고문헌, 인용문의 주기법에 대한 질문항목을 설정, 조사한 것으로 이 조사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이 저자명목록을 찾는 능력을 갖춘 학생은 조사대상자의 29%, 참고문헌 주기법에 대한 이해능력은 조사대상자 전체의 약 3%이고 대강 알고 있다는 반응도 8%뿐으로 나타나 과연 고등학생들이 레포트를 작성해 보았는지 의심이 되었다고 말할 정도이다.<sup>2)</sup> 이와 같은 도서관 이용능력은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도서관이용교육이 10.2%의 학교에서만 실시된다고 하는 조사보고(김두홍 1971, 73)와 일치하는 현상이다.

도서관이용교육의 내용이 자료검색기술, 기기조작기술, 탐구기술, 사고기술, 표현기술, 자료생산기술(Smith 1989, 87)을 육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실시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면 위의 조사결과는 심각한 것이다.

한편 독서지도는 문학류의 작품을 읽고 토론하거나 독서감상문을 쓰게 하는 것이 전형적인 형태로 우리나라 학교의 교사들간에 대체로 人性教育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사물을 바라보는 눈, 삶의 옳고 그름을 바로 깨닫는 마음, 道德的이면서 創造的인 생각, 이 모든 全人의 人格 形成에 主안점”(김완기 1990, 16-17)을 두는 것이 독서교육의 목표로 되어 있다. 물론 독서교육의 목적으로 자료활용능력이나 자기학습력 강화를 들고는 있지만 실제의 독서지도 현장에서 그다지 크게 주목되지 못하고 있다. 또 지식교육 혹은 기술능력교육도 독서교육에서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의 과학기술이 첨예하게 발달하고 그 발달되는 과학기술이 빠르게 일상의 생활 도구화하면서 생활모형이 따라서 빠르게 변화할뿐 아니라 다양해지게 되었다. 또 과학문명뿐 아니라 이에 연관이 있는 다른 분야들도 빠르게 변모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삶에 소용되는 자원(resources)으로서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지적으로 준비시키는”(Boon 1990, 2) 일이 필요하다. 학교교육부문에 말하면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발전의 과정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지식이나 정보를 필요할 때에 찾아서 활용할줄 아는 긴요한 삶의 무기를 학생들에게 장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미국에서 조사된 통계에 의하면 고등학교 3학년의 38%가 숙제로 보고서(report)를 준비할때 (도서관에서 1차, 2차자료 탐색을 통하여) 책이나 잡지 또는 신문기사를 찾아보는 계획적전략을 규칙적으로 사용하고 그 중 27.2%는 다루는 주제의 사진을 보고하고 개념을 분석하거나 가정을 발전시키고 일반화하는데 적절한 또는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Applebee et al. 1990, 11 ; 27)

이러한 목적으로 학교에서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식의 내용을 일일이 가르치지 않고 가장 기본적 원리나 법칙, 공리에 당하는 내용만 가르치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낱말의 개별지식은 필요할때 정보의 저장고에서 인식, 검색해 내고 분석, 평가, 종합, 이용하는 능력을 가르쳐서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론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는 곧 자료활용능력 내지는 자기학습능력 또는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학분야에서 확실하게 본격화된 것은 J.S. Bruner의 *The process of education reconsidered*(1971)에서라고 생각된다.

한편 도서관학을 연구하는 학자나 도서관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필요에 응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잘 아는 도서관자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교육과정의 교수 학습을 보다 더 교육목적에 일치하도록 실현할 수 없겠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연구가 현장에 적용되면서 교과를 담당하는 교육학전공의 교사나 교육행정가들 사이에 교육목적을 위해 사서교사들과 협동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게 되었다.

그 결과 1988년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와 미국교육기술협회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는 학교의 교수 학습·과정에서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도입 활용하도록 하는 지침(*Information power: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을 발표하였다.(1988, 특히 p.24) 이 지침의 골자는 교수·학습과정에서 도서관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행정담당자, 교과목담당교사, 사서교사가 어떠한 협동을 해야 하는가를 보이고 있다. 정보교육이란 한마디로 교육과정 전반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이 3 역할 분담자들의 협동으로 창출되는 교육을 의미한다.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편에서 정보교육을 본다면 교과서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수·학습만으로는 교육과정의 목표 즉 사고력, 창의력, 응용력, 문제해결력과 같은 능력이 효율적으로 신장될 수 없으므로 학교도서관의 자료전문가의 협력을 얻어 학교도서관자료를 활용하면서 교과수업을 하여 교육과정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정보교육이란 이와같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학교도서관자료를 도구로 하여, 교과에서 이야기되는 주제들을 정보의 집적체인 도서관자료체 속에서 인식, 검색, 획득, 평가, 이용하여 학생들 각각의 학습과정의 필요나 희망을 이루어 나가

는 훈련을 계속해감으로써 정보를 지적으로 처리하는 사고 능력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교육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그 유형은 도서관이용교육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금세기 후반에 들어서서부터 새로운 정보매체들이 다수가 등장하고 정보의 양이 폭주하면서 일상생활인들도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정보를 소화하고 평가, 합성하는 일을 외면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도서관이용교육의 내용과 목적이 확대수정되어 정보교육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상으로 필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산발적으로 또는 어휘가 의미하는 내용에 합당하지 않게 실시되어온 도서관이용교육 및 도서관이용교육의 한 분야로 인식되기도 하는 독서교육의 면모를 문헌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또 시대의 변화가 요청하는 도서관 이용교육의 변모사항이 정보교육을 낳게 했으며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정보화시대를 가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미 1988년에 국가차원의 자료 이용 지침서 내용을 정보교육으로 확정, 발표하였음을 피력하였다.

다음으로는 정보교육이 필요하되 필수교과로 책정해야할 만큼 중요하다고 보는 필자의 생각을,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이 창의적인 사람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논술하고자 한다.

## 2.2 도구과목 및 평생교육의 도구로서의 정보교육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물론 학부모들이 자료가 다양해야 학습이 효과적이라고 하는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교과서외의 자료들을 애써서 모아 도서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고 또 스스로의 수업에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교사는 매우 드물다. 또 자녀교육에 열성인 학부모들도 자료를 모아 도서관을 만들어 교육자료에 당할것을 건의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이러한 모순된 일의 원인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교육 목표를 설정하지만 그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100%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교육이 실패하였다고하는 국민 다수의 인정이 이를 증명한다. 확실히 상식의 선에서거나 교육전문가의 안목으로서



문일 것이다. 창의력은 남의 것을 본뜨거나 먼저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것을 꾸러내는 힘이다. 학생자신의 내부에서 그때 그때마다 조성해 내는 힘이다. 창의력이란 물론 직관에 관계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창의력은 천재 화가나 시인, 작곡가 혹은 발명가의 천부적 변독이는 직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을 다행스럽고 행복하게 영위하게 하기위한 도구로서의 창의력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창의력이 생기는 경로가 있다면 그것을 밝히고 그 경로를 따라 교육하게 되면 창의력이 습득될 것이다. 그 누구나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말하자면 지금까지 누적된 정보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들은 일상 생활에서 해결할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이에 가장 현명한 해결방법을 찾기위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것을 확인하고 또 그러한 종류의 무수히 많은 정보속에서 적절한 정보를 선택, 평가, 이용, 혹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재구성 할 수 있어야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창의력 교육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와같이 국민 누구나가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 선택, 평가, 이용,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교육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금후의 시대는 정보가 쏟아지는 속에서 정보로 사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창의력, 응용력, 문제해결력의 교육은 정보의 홍수라는 시대적 상황을 떠나서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훈련을 통하여 연마할 수 있고 또 그 훈련은 다양한 학교도서관 자료를 접하게 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학교도서관 자료들이 단 한가지의 교과서만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할수 없는 학생들의 사고력 훈련 내지는 창의력 함양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해낼수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료는 주제 혹은 지식 혹은 사건 등의 정보를 구현해 내는 도구이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접하게 한다함은 이러한 주제, 지식, 사건등에 관한 정의나 사실은 물론 이들에 관한 서로 다른 견해에 접하게 하고, 또 이들 견해를 비교하여 생각하고 그중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종합하여 자신의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 내거나 또는 정보자료가 담고 있는 생각들에서 실마리를 얻어서 전혀 생소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도록 기회를 준다함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1차, 2차 자료원에서 정보를 찾아 추출하는 능력, 편견을 찾아내고 분석하고, 정보에서 논쟁을 만들고 사실과 의견사이의 차이를 알아내고 해설하고 평가하고

상황을 인식하여 적용하는 능력 (Gibbs 1989, 10) 을 훈련하는 것이다.

J. Schwab는 학습에 사용하는 자료는 학생들이 그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1)자료가 전달해주는것, 예를 들면 이야기, 과학적 설명, 역사적 사건을 배우는 것이며 혹은 (2) 이러한 이야기, 과학적 설명,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배우는 것이며 또는 (3) 그 이야기, 과학적 설명,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해설하고 있는가를 배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Schwab 1973)

교과서의 한 단원의 제목이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자. 이때 교과서만으로 가르치는 교사는 사고력 함양을 위해 학생들에게 할수있는 것이 별로 없다. 교과서에서 기술한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이순신의 애국심과 용감성등을 분별도록 고무하는 교수를 할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교과서 이외의 자료들을 도서관에 가서 찾아서 읽거나 보고 혹은 듣게 하고 그 각각의 자료에 담긴 내용을 비교, 검토하게하여 (1)어떤 것이 역사적 사건이며 (2)그 사건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원인과 결과를 각각의 자료가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 찾아내고 (3)그 역사적 사건을 각각의 자료들이 어떠한 역사관을 가지고 해설하고 있는가를 찾아내게 한다면, 그렇게해서 그 각각의 의견에서 편견을 알아내고 타당한 견해를 판단하도록 한다면, 이론의 여지가 없이 이러한 학습방법이 사고력을 훈련하는 것이다.

여러가지 자료를 탐색하며 학습하는 학생은 생각하지 않고는 무엇을 할수가 없다. 또 종합적으로 보는 눈, 안목이 이런식의 학습을 늘 해서 몸에 붙게 되면, 생각하면서 사는 창의적 인간으로 일생을 살게 된다. 평생교육의 참모습은 평생교육원에 등록해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학습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는 개인개인의 모습을 말한다. 그러므로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이 처한 경우에 맞는 정보가 어떤것인지 생각해내고(figure out), 그것을 방대한 정보집적체속에서 탐색할 줄 알고 탐색한 정보들을 인출하여 읽거나 보거나 검토하여 평가하고, 자신이 처한 경우에 합당하게 이용하고 또는 여러정보에서 얻어낸 정보와 자신의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해 낼 줄 알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른바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서관이용교육 즉 정보교육인바 이는 내용적으로 말하면 정보문맹퇴치(Lukenbill 1989, 167-180)를 말한다. 이 정보교육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의 교육의 지표가 되는 창의적 인간을 육성하는 핵심교육이 아닐수 없다. 또 학생 스스로의 힘으로 학습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교사의 지도가 없는 졸업후의 생애에서도 자료를 찾아 학습을 하는 평생교육의

방법이기도 하다.

이와같이 중요한 정보교육이 교육외의 장으로 밀리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되어야 함은 물론 반드시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어 국어 교과나 산수교과처럼 학습되어야 한다. 학교의 수업시간배당에서 국어나 산수교과목을 왜 가장 많이 배정하고 있는가, 또 그 과목을 왜 상급학교 입학 시험에서 중요하게 취급하고 점수 배점을 높게 책정하는가는, 말할것도 없이 그것이 도구과목이기 때문이다. 국민 누구나가 국어, 산수교과에서 학습한 지식을 평생의 생활도구로 사용하면서 살기 때문이다. 적어도 20세기 후반부 어느 시기 까지는 초창기 정보화의 물결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후로 다가오는 미래의 세대에는 그 물결에서 사람답게 살아 남기 위해서 반드시 정보문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보를 요리할 수 있는 창의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사람답게 살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해야할 일은 이것이다.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물려받은 당시의 문교부가 문맹퇴치에 힘을 기울였듯이 지금의 교육부는 정보문명퇴치의 기치를 내걸어야 한다. 그것은 국민교육으로서의 창의성 교육, 사고력, 응용력,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교육이다.

이상으로 필자는 정보교육이 왜 필요한가를 기술하였다. 실제로는 예전부터 Alvin Toffler같은 미래학자들이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나, 그러한 예지가 없는 일반인들이야말로 어느날 갑자기 정보와의 접근의 거점역할을 하기위해 정보를 모으고 이를 독자들에게 연결해주는 일을 하던 도서관과, 거기서 정보를 다루는 정보전문가들이 “교육이 관심하는 것의 중심부에 있는 어떤 중요한 것이 되어” (Beswick 1988, 6) 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창의성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보교육이 필요하고 정보문명퇴치를 서둘러야 하는 까닭이다. 이것이 온 나라 국민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의 도구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

### 3. 정보 교육의 방법

필자는 전장(2)를 통하여 정보교육이 초중고등학교의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소견을 피력하였다. 그러면 이와같이 국민교육에 필요한 정보교육을 어떠

한 방법으로 시행해야 할 것인가.

### 3.1 다양한 자료의 집적체 - 학교도서관

정보교육은 앞서도 기술된 바와같이 학습자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학습할 수 없게 만드는 교과이다. 물론 이런 류의 교과도 과거의 윤리나 도덕 교과처럼 중요한 과목으로 앞세워 놓고, 가르치기는 교과서의 내용만을 설명하는 식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윤리나 도덕과목처럼 학생들의 윤리나 도덕적 행위와는 하등에 상관없이 외워서 시험치르는 교과가 될 것이고 외우되 윤리나 도덕의 내용보다 더 무미건조한, 내용을 외우는 교과가 될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학습하는 이들에게는 사고력을 기대할 수 없다.

정보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변화속에 속출하는 술한 정보속에서 상황에 맞는 판단과 의사결정, 이에따른 행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는 사고력, 창의력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사는 삶을 영위하는 태도와 습관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능력, 창의적인 능력은 지속적인 훈련으로 연마할 수 있다. 또 태도나 습관을 기르는 것도 역시 훈련으로 된다. 훈련을 위해서는 훈련을 할 장소와 훈련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학교도서관과 사람의 생애의 초창기에 해당하는 학생시절이다. 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는동안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여 생각하며 사는 창의적 삶을 훈련하고 사회에 나갈때, 그들은 정보가 만연하여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능력있는 생애를 살아갈 것이다.

### 3.2 통합교육이론과 정보교육의 통합적 교수·학습

효율성있는 정보교육방법을 생각할때 정보의 집적체인 도서관이 실속있게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다. 그러나 과거의 정보교육경험은 그것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정보를 다루는 기술이나 능력은 필요한 정보(지식)을 습득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도구를 사용하는 훈련을 하는데는 도구를 적용해 볼 내용이 있어야 한다. 수려한 문장을 쓰는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문장으로 전달되는 어떤 메시지를 내용으로 이용

하고, 소묘기술을 함양하기 위해 여러가지 형태의 석고상을 소묘할 내용으로 삼는 것과 같다.

물론 과거에 타 교과목의 교육과정과 별도로 도서관 이용법을 가르칠 때도, 예를 들어 도서관 목록이용법을 가르칠때 목록이용법을 적용해볼 일군의 서목을 사용했다. 이때 목록 찾는법을 적용해 보는 서목의 서명들은 학생들이 다른 교과에서 학습하는 교육과정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방식의 정보교육은 학급단위로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김정소는 소정의 정보교육 내용을 여타의 교과학습과 같이 계통적, 체계적으로 교육하게 되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김정소 1993, 168-169)

그러나 학습은 학습자에게 학습이 일어나도록 하는데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계통적, 체계적으로 가르치더라도 학생들에게서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다. 목록이용법을 공부할 때 목록을 찾는 방법을 적용해 볼 내용이 학생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거나 흥미가 있는 것이라야 목록찾는 법이 제대로 습득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피상적이어서 실제로 학습경험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말하면 정보교육 교과인 목록찾는 법을 적용해 볼 내용이 다른 교과수업에 적용되어 학생들이 학습할 필요나 흥미를 절실하게 느낄때에야 학습이 일어난다. 정보교육의 교육과정이 타 교과내용을 학습하기위한 도구라는 측면에서 타 교과의 교육과정과의 통합 및 타교과 담당교사와 사서교사의 협동적 교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합교육과정 및 협동적 교수·학습이 갖는 특징들을 살펴보고 정보교육과정이 타 교과와 통합교육될 때의 효과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 3.2.1 통합교육이론과 창조성 교육

교육에서의 통합에 대한 개념은 19세기 초에 등장한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서 J. Dewey가 진보주의 교육을 주창하면서 학습경험의 통합을 중요시하게 되어 강력한 지지를 얻게 되었다. 그후 학문중심교육이 세력을 펴면서 수그러 들다가 다시 1970년대의 인간중심교육의 등장 및 학문중심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중에서도 교육과정의 통합운동을 지지하는 이들이 나와서 교육에서의 통합이론이 다시 대두하게 되었다.(김재복 1993, 9) 그러나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통합교육에 대한 개념, 견해, 방법등에 대해서 공통적인 합의가 되어있지 않은것 같다.(이영덕 1983, 16-17 ; 김재복 1993, 10-11)

우리나라에서는 전인교육의 강화방안의 하나로 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가 극히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국외의 연구에서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더 불분명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지식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전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제4차 교육과정개정(1981)을 통해 국민학교 1, 2학년 과정에 통합교과서를 발행하였고, 제5차 교육과정(1987)에서는 이를 보다 강화한 통합교과의 편제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제6차 교육과정(1992.10)에서는 교육과정통합을 중등학교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김대현 1993, 100) 교육과정통합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과통합이 인격통합이나 전인교육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기는하나(김대현 1993, 113) 이와같이 우리나라는 통합교육을 공식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영덕은 통합교육의 필연성을 인간의 특성을 토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은 이미 출생때부터 통합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각각 개별의 경험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자아에 연결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1983, 44)고 기술하고, 교육은 인간이 갖는 이러한 통합지향성의 경향을 보다더 잘 보장해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하여 김재복은 “통합은 경험을 관련짓고, 구별하며, 전체를 모으는일, 여러가지 지각요소를 판단하는일 등과 관련되어 있다. 즉 이것은 실재(reality)에 대해 知覺이 관련되는 과정이며...”(1993, 21) 라고 설명하여 통합을 좀더 인간의 思考와 관련시켜 설명하였다.

Wingfield와 Byrnes는 기억에 관한 연구를 망라적으로 소개한 기술보고서적 저술 『인간기억의 심리학』에서 사람이 지각으로 얻는 새로운 정보는 개념적 구조로 체계화 (이관용 외 역 1984, 99)되어 재구성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사람의 두뇌는 계속적으로 외부에서 지각되어 인식 혹은 경험하는 事象들을 받아들여 그것들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는 체계적 개념의 구조속에 논리적으로 삼입시켜 새로이 변형된 체계적 구조로 만들어 내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개념적 구조로 체계화”라는 것은 전체, 부분 및 체계적 연결이라는 세 요소가 그속에 내재한다는 의미이고, 이 세요소의 존재양식은 당연히 부분 부분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전체를 이루는 체계적인 통일체 혹은 통합체인 것이다. 사람은 머리속에서 계속적으로 개념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되 그 작업은 논리적작업, 즉 생각함으로써 해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람의 인지구조를 설명하는 Jean Piaget의 이론도 이와 유사성이 있다. 그가 주장하는 同化와 調節(송명자 1982, 159-166 ; Ginsberg and Oppen 저, 김억환 역 1993, 45-46)은 계속적으로 인지구조를 넓힘으로써 새로운 인지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인지구조에는 기왕에 가지고 있는 인지구조와 새로이 지각되는 事象의 논리적 연결이라는 통일성을 전제하고 있다. 여기서도 역시 계속적으로 통일 혹은 통합하는 작업을 하되 그 작업은 논리적 연결이라는 사고과정을 거치므로써 동화 혹은 조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새로운 것은 창의적인 것이고 그것은 생각하는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창의적인 것은 계속적으로 개념을 통합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교육에 결부했을 때 개념을 통합하는 훈련을 하도록 되어있는 통합교육은 창의적이다, 창의성을 창출한다고 말할 수 있다.

J. Dewey의 경험주의 교육철학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이고 S. R. Ranganathan은 교육방법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분해된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과 통합적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교육의 過程이 창조적이 되기 위해서는 분해되어서는 안되며 통합적이어야 한다. 분해 자체에서는 창조성이 생기지 않는다”(1973, 100)고 말하였다. 충분한 근거가 있는 판단이다.

### 3.2.2 정보교육의 통합적 교수·학습

교육이 개념을 통합하는 훈련을 하도록 해야 창의적 교육이 된다면 정보교육 역시 통합적이어야 할 것이다.

문헌정보학이 도서관학이란 명칭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을 초창기부터 이 분야의 학문은 체계적 이론보다 실무 경험이 먼저 축적되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비슷하게 정보교육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통합 교육의 개념과 연결하여 두 개념을 묶어서 이해한 사람은 아직 없지만 문헌정보학의 선두주자인 미국에서는 타교과와의 통합적 정보교육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론으로 규명하기에 앞서서 실제로 해보니까 효과적이기 때문이다.(Ohlrich 1992, 35-38 ; Bell and Totten 1991, 293-310 ; Willeke and Peterson 1993, 101-105) 그러나 실무의 측면에서 이미 시도되고 있는 정보교육의 방법을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정보교육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교육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절(3.2.2)에서는 도구과목으로서

의 정보교육의 통합적 교수·학습의 효과 혹은 당위성을 이론적으로 입증하려고 한다.

도구 과목으로서의 정보교육의 중요성은 창조적 교육에 이바지하는 두가지 특징을 갖는다. 그 하나는 앞서(2.2) 기술된 바와같이 정보교육 자체 내에 정보자료를 확인, 탐색, 수집, 분석, 평가, 이용, 재구성하는 교육과정이 포함되므로 즉 학자들이 이미 연구해 놓은 결과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는 방법과 태도를 훈련하게 되므로 그 교육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사고력을 훈련하게 되고, 창의적 태도를 기르게 되며, 창조물을 생산해 내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보교육이 타 교과목과 통합적으로 교육됨으로써 학교에서 분리 교육하고 있는 주제들(교과목들)간의 통합적 안목을 형성하게 만들어 보다 유연한 사고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통합교육이 인격통합이나 전인교육을 돕는다는 주장들이 있으나 필자는 인지론과 기억에 관한 심리학의 이론을 토대로 事象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사람의 두뇌가 갖는 본래의 성향으로 보고 통합교육은 이 두뇌가 생각하는 일을 조장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3.3.1 참조)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하여 정보교육의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여러가지 교과목의 교육과정과 통합교육될 경우의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도서관자료는 있을수 있는 모든 주제를 여러가지 견해나 측면에서 다루고, 또 여러가지 방법으로 다루고, 다양한 주제를 서로 걸쳐서 다룬 것이다. 정보교육은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학생 스스로의 힘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체의 교육을 포함한다.

학생들은 각 교과를 학습할때 물론 각 교과목의 주제분야를 내용으로 하는 자료를 가지고 학습하게 될 것이지만, 한주제 분야의 자료도 여러가지 견해나 측면에서, 또 여러가지 방법으로, 또 그 주제내의 하위 주제(들), 혹은 그 주제보다 더 포괄적인 주제(들)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자료들을 학습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각교과목의 주제분야에 관련되는 다른 주제 분야도 함께 다루고 있는 자료들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교육과정에 편제되어 있는 모든 교과를 이러한 형태로 학습하게 되면 자연히 여러가지 교과목에서 다루는 주제의 연관성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한 연관성을 실마리로 하여 유연하게 종합적으로 생각하게 된다.(p.66 하단참조) 이러한 방식의 학습을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12년을 하면 창의적인 사람은

저절로 길러지게 된다.

결국 정보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각 교과가 다루는 주제를 통합하는 일, 즉 사고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초두에 문제로 제기되었던 교육에서의 응용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은 사고하는 능력의 정도에 따라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때 정보교육은 타교과와 통합교육됨으로써 분리교육되는 여러 교과의 교육과정 통합의 효과를 높이고 학습 방법면에서도 통합적 학습 효과를 높일수 있는 것이다. 곧 창의적인 사람을 기르는 교육에 이바지한다고 하겠다.

#### 4. 결 론

우리나라는 교육문제가 대통령선거공약에 등장할 정도로 커다란 과제이다. 그리고 교육이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교육목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방법에 있다. 마침 대학입학수학능력고사가 1993년 8월부터 실시되면서 각급학교에서는 수업방식의 전환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사고력, 창의력 함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대학입학시험이 사고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출제되는데 기인한다.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의 육성은 원래 우리나라 교육의 단골 교육목표중의 한 항목이기도 하다.

필자는 정보교육이 원래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성격상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자기학습력 신장을 위한 학습, 또는 정보문맹퇴치의 방법이며, 필연적으로 사고하게하는 과정을 밟게되어 있어서 실시하기만하면 자연적으로 사고력이 길러지는 것이라고 그 내용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기억에 관한 심리학과 Jean Piaget의 인지론에 근거하여 통합교육이 사고력, 창의력 교육에 기여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므로 정보교육도 타교과와 통합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두가지 측면에서 통합적인 실시가 필요하다고 해설하였다.

하나는 정보교육 교과내용 자체가 창의력을 훈련하는 도구교과이기는하나, 타교과수업내용과는 별개의 내용을 정보교육 실시의 도구로 삼는 것보다, 학생들이 이수하고 있는 교과내용을 도구로 삼아 정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감있는

학습경험을 하도록하여 실제로 학습이 일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리교육되고 있는 여러분야의 교과를 각각 정보교육교과와 통합교육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여러 교과의 수업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이 기왕에 창의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만큼 초중고등학교의 사서교사는 물론 정보교육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는 교과담당교사 및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교육행정담당자들이 본 논문의 주제인 창의적 인재양성의 제일가는 방법으로서의 통합적 정보교육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한다. 그렇게해서 이 교육이 각급학교에서 되어지도록 협력하면 우리나라 교육목적의 하나인 창의적 인간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 참고문헌

- “科學高가 휩쓰는 이유” 중앙일보. 1994.1.23 3면사설
- 교육부. 1992a. 고등학교 교육과정 : 제 6차 교육과정 : 교육부고시 제 1992-19호.  
서울 : 대한교과서.
- 교육부. 1992b. 국민학교 교육과정 : 제 6차 교육과정 : 교육부고시 제 1992-16호. 서울 : 대한교과서.
- 교육부. 1992c. 중학교 교육과정 : 제 6차 교육과정 : 교육부고시 제 1992-11호.  
서울 : 대한교과서.
- 교육부. 1994. '93 교육정책 추진성과와 과제 : 문민정부 출범 1년 교육정책 추진 평가자료. 서울 : 대한교과서.
- 김대현. 1993.4. “통합교과의 목표와 조직방식의 정당성문제” 教育學研究. 31 : 1.  
p. 99-115
- 김두홍. 1971. “학교도서관편” 전국도서관 실태조사(하). 서울 : 한국도협.
- 金完起. 1990. “국민학교에서 왜 독서교육을 강조해야 하나?” 어린이와 독서 11.  
p. 14-26
- 김용철. 1986. “학교 도서관의 Media Center化를 위한 연구” [공주사대]논문집 24.  
p. 459-479
- 김재복. 1993. 教育課程의 統合的接近. 서울 : 教育科學社.
- 김정소. 1993. 학교도서관 매체 센터론. 대구 : 계명대학교 출판부.
- 류완영. 1994.1. “학교시설, 환경의 획기적 현대화” 교육월보. p. 50-53.(특별기획 1.  
교육개혁의 논리와 방향)
- 송명자. 1982. “피아제의 인지구조변형론과 학습” 피아제 연구 / 한국심리학회.  
발달심리연구회.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p.158-178.
- 송희준. 1994.1. “창의력 발현을 위한 교육개혁” 교육월보. p. 32-35.(특별기획 1.  
교육개혁의 논리와 방향)
- 이병수. 1988. “교수·학습방법의 개선과 학교도서관의 역할” 교육관리기술 19 : 18.  
p. 113-120
- 이영덕. 1983. “통합교육과정의 개념” 統合教育課程의 理論과 實際 / 韓國教育開發院 編. 서울 : 教育科學社. p. 15-55.

- 정범모. 1994.4.2. “창조적 인재 육성 급선무 : 암기탈피 정보선택-활용 가르쳐야 : 창간 74주년 기념. 근대화 1세기 특집2부 심포지엄. 교육[분야] 주제 발표” 동아일보. 6면
- “중고 성적 席次制 없앤다 : 서울교육청 3월 부터 논술시험, 토론수업도 강화 ” 한국일보. 1994.1.22 27면
- 葉奎振, 權泰東. 94.1.23. “과학, 외국어高 大入준비 어떻게 했나” 중앙일보. 21면
- 한윤옥. 1978. ”고등학교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능력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 5. p. 152-178
- AASL and AECT. 1988. *Information power : guidelines for school library media program*. Chicago : ALA.
- Applebee, Arthur N. et al. 1990. *Learning to write in our nation's school : instructon and achievement in 1988 at grade 4, 8, and 12*. [Princeton, NJ] : Educational Testing Service. (ERIC Doc. ED 318038)
- Bell, Michael and Herman L. Totten. 1991. “School climate factors related to degree of cooperation between public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school library media specialists. *Library quaterly*. 61 : 3. p. 293-310
- Beswick, Norman. 1988. “The use of knowing : interactive models of the school library” *School librarian*. 36 : 1. p. 6-9. 13)
- Boon, J.A. *Broadening horizons : education for information use : paper delivered at the pre-conference symposium : education for optimum information use, SAILIS Conference at Wild Coast Sun in 1990*. p. 2 (unpublished)
- Bruner, J.S. 1971. “The process of education reconsidered” *Dare to care / dare to act : ASCD annual conference report, 1971* / ed. by Robert R. Leeper ( “교육의 과정의 재음미” 교육의 과정 / 이홍우 역. 서울 : 배영사, 1973)
- Gibbs, Sally. 1989. “The final frontier independent learning and the role of the library” *School librarian*. 37 : 1. p. 10-11
- Ginsburg, Herbert and Sylvia Opper. *Piaget's theory of intelletual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피아제 인지발달론 / 김억환 역. 서울 : 성원사. 1993)
- Lukenbill, W.B. 1989. “Information literacy : using the process approach in

- bibliographic instruction" *International review of children's literature and librarianship*. 4 : 3. p. 167-180
- Ohlrich, Karen Broune. 1992. "Flexible scheduling : the dream vs. reality" *School library journal*. 38 : 5. p. 35-38
- Ranganathan, S.R. 1973. *New education and school library*. Delhi : Vikas Publishing House.
- Schwab, J. 1973. "The practical 3 : translation into curriculum." *School review*. 81 : 4. p. 501-522
- Smith, Jane Bandy. 1989. *Library media center programs for middle schools : a curriculum-based approach*. Chicago : ALA.
- Willeke, Marjorie J. and Donna L. Peterson. 1993. "Improving the library media program : a school district successful experience with change" *School library media quaterly*. 21 : 2. p. 101-105
- Wingfield, Arthur and Dennis L. Byrnes. 1981. *The psychology of human memory* (人間記憶의 心理學 / 이관용, 김기중, 박태진 역. 서울 : 법문사. 1984)

## ABSTRACT

## A Study on Information Education and School Library

So-Young Yoo\*

Creative thinking in education is a common assumption to be accomplish in this information age. Information education can contribute to build the ability to think creatively.

The Author explored how information education conduces the creative thinking ability that is necessary to the development of independent and competent study for students themselves.

The writer also expressed the integrated education makes students think synthetically and synthetic educational experience derives creative thinking. She based her arguments upon the theory of the psychology of memory and the Piaget's cognitive structure. To increase the effects of information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curriculums and learning method of the information education and those of other areas of learning, i.e., languages, literatures, social sciences, sciences, mathematics, etc.

Here, author asserted that the teaching of information skill within classroom curriculums for all subject areas can make the integrated effects on various classroom curriculums.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author recommended that every school needs to prepare enough books and other media for the students to drill information skill. Consequently, to build creative thinking ability for the students, librarians, classroom teachers and school principals who have influence on the information education, have to cooperate to initiate integrated information education for the student.

---

\* Associate Professor, Dep.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unkuk University.